

충남리포트 제139호

ChungNam Report

2014. 11. 26.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본 글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쟁점을 짚어보고 충남 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요 약

- 2012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던 한·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되었음
- 2013년 기준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상대국이며, 충남의 수입(31억불)보다 수출(309억불)이 10배 정도 더 많은 나라임
-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217억불(70.2%)을 수출하였으며, 수입은 전자전기제품 8억불(24.7%), 농림수산물 5억불(15.8%) 순
- 교역구조상 충남은 전자전기제품 분야에서 큰 이득이 예상되었고,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에서도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협상결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 비록 많은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충남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철강금속 및 생활용품, 섬유류에서도 피해가 예상
- 충남은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고 한·중 FTA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이 7.1%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충남 수출입 기업 300개 대상)
- 충남이 한·중 FTA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확대와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기초수준에서부터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CONTENTS

〈요약〉

1. 한·중 FTA의 의의
2. 대중국 통상현황 및 쟁점
3. 한·중 FTA는 위기인가?
4. 충남도 대응방안

한·중 FTA의 의의 ◀

01

-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던 한·중 FTA가 2014년 11월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음
 -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 농산물의 경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
-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음
-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
- 중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중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
-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중국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수준을 역대 FTA 최저규모로 방어했고, 쌀은 양허제외 하였지만 국내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이처럼 한·중 FTA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충남이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충남의 지역경제가 크게 성숙할 수 있을 것임

대중국 통상현황 및 쟁점 ◀

02

●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상대국이며, 충남에서 수입(31억불)보다 수출(309억불)이 10배 정도 더 많음

○ 먼저 우리나라와 충남의 대중국 통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2013년 우리나라 5대 교역국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총계	559,632	(100.0)	총계	515,586	(100.0)
1	중국	145,869	(26.1)	중국	83,053	(16.1)
2	미국	62,052	(11.1)	일본	60,029	(11.6)
3	일본	34,662	(6.2)	미국	41,512	(8.1)
4	홍콩	27,756	(5.0)	사우디	37,665	(7.3)
5	싱가포르	22,289	(4.0)	카타르	25,874	(5.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13

○ 2013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459억불(수출비중 26.1%)이고, 수입 또한 831억불(수입 비중 16.1%)로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자 수입국

〈표 2〉 2013년 충남 5대 교역국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전세계	65,185	(100.0)	전세계	33,980	(100.0)
1	중국	30,856	(47.3)	쿠웨이트	5,813	(17.1)
2	홍콩	8,175	(12.5)	중국	3,131	(9.2)
3	미국	4,978	(7.6)	일본	3,004	(8.8)

	수출			수입		
	전세계	65,185	(100.0)	전세계	33,980	(100.0)
4	대만	3,273	(5.0)	호주	2,420	(7.1)
5	일본	2,967	(4.6)	카타르	2,145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은 309억불(수출비중 47.3%)로 중국은 충남 제1의 수출국이며, 수입은 31억불(수입비중 9.2%)로 충남 제2의 수입국

○ 충남의 대중국 교역은 수입보다는 수출부문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217억불(70.2%)을 수출하였으며, 수입은 전자전기제품 8억불(24.7%), 농림수산물 5억불(15.8%) 순

〈표 3〉 2013년 우리나라 대중국 10대 교역품목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총계	145,869	(100.0)	총계	83,053	(100.0)
1	전자전기제품	70,298	(48.2)	전자전기제품	33,955	(40.9)
2	화학공업제품	28,209	(19.3)	철강금속제품	12,183	(14.7)
3	기계류	22,774	(15.6)	화학공업제품	9,644	(11.6)
	수송기계	9190	(6.3)			
4	광산물	8,711	(6.0)	기계류	8,478	(10.2)
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3,483	(2.4)	섬유류	6,322	(7.6)
6	철강금속제품	7,644	(5.2)	농림수산물	4,685	(5.6)
7	생활용품	738	(0.5)	생활용품	3,697	(4.5)
8	농림수산물	1,151	(0.8)	광산물	2,267	(2.7)
9	섬유류	2,730	(1.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1,553	(1.9)
10	잡제품	130	(0.1)	잡제품	269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3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703억불(48.2%)을 수출하였으며, 화학공업제품 282억불(19.3%), 기계류 228억불(15.6%) 순이었으며, 수입 1위 또한 전자전기제품으로 340억불(40.9%)을 수입하였고, 철강금속제품 122억불(19.3%), 화학공

업제품 96억불(15.6%) 순으로 나타났음

〈표 4〉 2013년 충남 대중국 10대 교역품목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총계	30,856	(100.0)	총계	3,131	(100.0)
1	전자전기제품	21,676	(70.2)	전자전기제품	773	(24.7)
2	화학공업제품	5,354	(17.4)	농림수산물	495	(15.8)
3	기계류	2,142	(6.9)	화학공업제품	489	(15.6)
	수송기계	929	(3.0)			
4	광산물	847	(2.7)	철강금속제품	473	(15.1)
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346	(1.1)	기계류	395	(12.6)
6	철강금속제품	198	(0.6)	광산물	188	(6.0)
7	생활용품	147	(0.5)	생활용품	151	(4.8)
8	농림수산물	101	(0.3)	섬유류	98	(3.1)
9	섬유류	39	(0.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51	(1.6)
10	잡제품	7	(0.0)	잡제품	17	(0.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3년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217억불(70.2%)을 수출하였으며, 화학공업제품 54억불(17.4%), 기계류 21억불(6.9%) 순이었고, 수입 1위 품목 또한 전자 전기제품으로 8억불(24.7%)을 수입하였으며, 농림수산물 5억불(15.8%), 화학공업제품 5억불(15.6%) 순으로 나타났음

한·중 FTA는 위기인가? ◀

03

1.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교역구조상 충남은 전자전기제품 분야에서 이득이 예상되었고,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에서도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협상결과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표 5〉 2013년 우리나라와 충남의 대중국 수출비교

(단위: 백만불)

품목명	전국			충남		
	금액	비중	수지	금액	비중	수지
총계	145,869	(100.0)	흑자	30,856	(100.0)	흑자
전자전기제품	70,298	(48.2)	흑자	21,676	(70.2)	흑자
화학공업제품	28,209	(19.3)	흑자	5,354	(17.4)	흑자
기계류	22,774	(15.6)	흑자	2,142	(6.9)	흑자
수송기계	9190	(6.3)	흑자	929	(3.0)	흑자
광산물	8,711	(6.0)	흑자	847	(2.7)	흑자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483	(2.4)	흑자	346	(1.1)	흑자
철강금속제품	7,644	(5.2)	적자	198	(0.6)	적자
생활용품	738	(0.5)	적자	147	(0.5)	적자
농림수산물	1,151	(0.8)	적자	101	(0.3)	적자
섬유류	2,730	(1.9)	적자	39	(0.1)	적자
잡제품	130	(0.1)	적자	7	(0.0)	적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교역구조로 살펴보았을 경우 충남의 수출상위 품목인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에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하면 수출이 증가하여 흑자폭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교역비중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자전기제품은 전국보다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전국보다 크며, 화학공업제품은 전국대비 긍정적 효과가 비슷하고,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류는 전국보다 수출비중이 낮아 긍정적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전자전기제품은 이미 현지화와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으로 이미 관세가 낮아서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휴대폰,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이며, 디스플레이(LCD) 패널 역시 민감품목으로 분류)
- 그러나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전기담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수혜) 기대
- 석유화학제품도 연간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력 수출상품이 양허제외나 초민감품목으로 선정되어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중국이 자국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은 높이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자동차산업은 한·중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받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자동차가 양국 모두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자동차부품(엔진과 자동변속기, 기어박스, 클러치 등) 또한 양허제외나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되어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 **교역구조상 충남은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철강금속 및 생활용품, 섬유류에서도 피해가 예상**

〈표 6〉 2013년 우리나라와 충남의 대중국 수입비교

(단위: 백만불)

품목명	전국			충남		
	금액	비중	수지	금액	비중	수지
총계	83,053	(100.0)	흑자	3,131	(100.0)	흑자
농림수산물	4,685	(5.6)	적자	495	(15.8)	적자
철강금속제품	12,183	(14.7)	적자	473	(15.1)	적자
생활용품	3,697	(4.5)	적자	151	(4.8)	적자

품목명	전국			충남		
	금액	비중	수지	금액	비중	수지
섬유류	6,322	(7.6)	적자	98	(3.1)	적자
잡제품	269	(0.3)	적자	17	(0.5)	적자
전자전기제품	33,955	(40.9)	흑자	773	(24.7)	흑자
화학공업제품	9,644	(11.6)	흑자	489	(15.6)	흑자
기계류	8,478	(10.2)	흑자	395	(12.6)	흑자
광산물	2,267	(2.7)	흑자	188	(6.0)	흑자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553	(1.9)	흑자	51	(1.6)	흑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교역구조 살펴보았을 경우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는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교역비중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농림수산물은 전국대비 수입비중이 매우 높아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며, 철강금속 및 생활용품은 전국대비 부정적 효과가 비슷하고, 섬유류는 전국대비 수입비중이 적어 부정적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짐
- 비록 많은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은 세계 최대 농림수산물 국가인 중국에 비교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
- 철강금속제품의 경우도 국내 유통가격과 수입산 철강가격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
- 섬유의 경우 이미 중저가 섬유 시장이 중국산으로 대체되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중저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이 국내 영세업체로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이 없다면 중국산 저가 섬유수입에 대응할 수 없음

2. 한·중 FTA에 대한 충남 중소기업 인식조사

- 2013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⁴⁾ 결과 충남은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고

한·중 FTA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이 7.1%로 기대와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표 7〉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

수출만 함	수입만 함	수출/수입 다함	교역 안함
44.3	11.0	9.7	35.0

- 충남 중소기업의 44.3%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고, 11.0%가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기업은 9.7%로 나타나 중국과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8〉 충남 중소기업의 한중 FTA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매우피해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1.5	5.6	45.1	41.5	6.2

- 설문조사결과 중국과의 FTA에 대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47.7%로 나타났으나,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도 7.1%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대해 충남 중소기업의 88.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3%만이 반대의 입장.

〈표 9〉 충남 중소기업의 향후 FTA 찬반여부

(단위: %)

적극반대	반대	찬성	매우찬성
0.3	11.0	83.7	5.0


1) 2013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김양중 외, 2013) 수행 시 조사된 자료이며, 표본은 충남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자체조사한 수출입 기업리스트에서 시군별 층화 추출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

- FTA 대응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 차원에서도 전략 수립이 필요
- 충남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시도로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함
-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보다 높이고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한·중 FTA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원산지인증, 사후검증 등 지속적인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하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투융자지원, 거래선 확보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물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수입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함
- 먼저 충남의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확대와 기능강화가 시급함
 -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을 위한 전반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 둘째,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기초수준에서부터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 수출에 실패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첫 수출 성공까지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FTA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세분화가 필요

- FTA 설명회 등 단편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중국교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비관세 장벽 등 중국수출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 

김 양 중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63, kyj0509@cdi.re.kr

◆ 참 고 자 료 ◆

김군수,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2012.

김양중 외,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2013.

박정현, “한·중 FTA 협상: 현황과 전망”, 201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보도자료, 2014.

한·중 FTA 공청회 발표자료, 2012.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헌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도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